

해외이주 한인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 형 원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런던과 근교에 거주하는 1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설정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낮은 집단,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큰 집단의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의 해외생활 적응과 가족기능을 향상을 위하여 해외이주 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적 전환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스트레스 완화와 가족기능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용어: 가족기능, 가족관계,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해외이주 가정

■ 투고일: 2012.10.31 ■ 수정일: 2012.12.7 ■ 게재확정일: 2012.12.21

I. 서론

세계화·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민, 해외근무, 조기유학,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2001년 5,653,809명이던 재외동포는 2011년 7,268,771명으로 증가하였다(외교통상부, 2011). 이러한 증가추세는 경제성장과 해외교역의 확대, 투자 및 취업이주의 확대, 정부의 조기유학 규제정책의 완화 등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이주¹⁾는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도전하며, 개인적 발전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이주자들은 문화적응문제, 가족문제, 재정문제, 학교문제, 인종차별, 건강문제, 대인관계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주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이주자들은 우울, 정신분열, 불안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갖는다(Short & Johnston, 1997; Kou et al., 2008). 해외이주자들은 언어사용의 어려움, 모국에 대한 향수, 새로 접하게 된 이질적인 문화와 관습, 가치관의 차이, 직업과 사회지위의 변화, 사회적 지지기반의 상실, 자녀교육,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혼란과 부적응적인 행동의 일반적인 현상을 망라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정의한다(Williams & Berry, 1991).

개인이 경험하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이 속한 가정과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문화로의 진입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원들이 경험하는 세대간, 문화간 갈등은 가족원간의 지지, 관여, 따뜻한 상호작용을 감소시킨다(Schwartz et al., 2005). 해외이주 가정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으로서 부모간의 문화적응 속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역할수행과 인식의 차이, 부모-자녀간의 문화적응 차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 하향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직업수행스트레스 등이 있다(한정애, 2006). 히스패닉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Schwartz 외(2005)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문화적응 불일치, 이주 및 직업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

1) 해외이주자를 표현하는 용어는 해외교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재외한인, 이민자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immigration', 'immigrant'를 번역하여 해외이주의 목적과 사유,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한국 이외의 국가로 이주해서 거주하는 것을 '해외이주', '해외이주자'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레스는 가족기능을 약화시키고, 약화된 가족기능은 다양한 행동문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은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가족원들이 서로의 요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해외이주자들은 과거 고국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원해 주던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물질적 지원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대처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문화적응은 다른 문화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심리사회적 과정이며, 개인과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가정이 아닌 개인에게 관심을 가져왔다(Miranda et al., 2000).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안준희·조정희, 2011), 심리사회적 적응(김오남, 2007; 이주재·김순규, 2010), 부부 및 가족관계(김혜신·김경신, 2011; 박순희, 2011; 원서진·송인옥, 2011)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해외이주 한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는데,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김경화, 2010; 오성희, 2007)이 있고, 가정을 단위로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초점을 두어 가족 성원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이주 가정의 한 성원으로서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심리사회적 특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다. 또한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해외이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해외이주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해외이주 한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가정이 보다 안정

적으로 생활하고, 원활한 가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II. 문헌고찰

1. 이주자의 문화적응과 심리사회 적응

문화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념체계가 도전받고,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Berry(1970)는 이러한 문화 간의 계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생긴 변화를 문화적응(accultur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소래, 1997 재인용).

이주자들은 본래부터 갖고 있던 개인 상호 지지체계의 상실, 낮은 문화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문화적응과정에서 이주자들은 불안감이나 우울, 소외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주자들이 주류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Williams et al., 1991).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높은 수준의 적대감과 불안, 좌절, 우울, 과도한 알콜섭취,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Miranda et al., 2000).

우울은 근심, 침울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로 개인의 부정적 정서긴장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여겨지고 있다(이인선, 2004). 우울은 이주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인데, 재외 한인들에게 우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독립적인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지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Bernstein, 2007), 한인 커뮤니티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국인 이주자들의 경우 소극적인 정서적 대처반응으로서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인들은 고유 문화와 언어에 집착하며, 낮은 동화수준과 높은 민족 정체성을 갖

고 있어 많은 한국인 이주자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도 하고(Bernstein, 2007), 이러한 상황이 우울한 정서를 야기한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적응이 어렵고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결과(Beiser & Hou, 2006)에 따라 여성의 우울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부정적 요소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타지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하여 실질적 지원을 받는 관계형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도 효과가 있음(김미령, 2004)을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지지 역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해외이주 가정의 여성이기 때문에 해외이주와 관련된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를 그들의 주된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보고 이 세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이주자의 가족기능

가.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과 행위로서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과 만족에 영향을 주며, 가족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기능에 대한 접근은 가족체계관점에서 시작한다. 가족체계관점은 가족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가 하나의 체계로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본다. 즉, 한 가족의 성원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받으며, 한 성원의 변화는 다른 성원에게도 영향을 주며, 이는 전체 가족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가족기능 수준이 높은 가족의 특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으로는 가족원간의 인정, 안정감, 성장기회 제공, 자주성,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적응, 가족구성원의 요구와 관심에 대한 책임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가족은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원만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기능적이기도 하고, 역기능적이기도 하다. 가족기능 수준이 높은 가족은 가족원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원간의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경직되지 않아 가족원간에

원만한 상호작용을 적절히 유지하여 친밀감이 유지된다. 또한 가족원간에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명확하면서도 융통성있는 가족규칙을 가짐으로써 가족 외부의 문제에 영향받더라도 안정을 되찾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족이다(최희진, 2004).

나.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

해외이주는 가족관계, 역할, 가족기능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해외이주 한인 가정의 경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자녀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지고, 부부간의 지지가 강화되고, 한국에 있는 시댁과의 갈등이 없어지는 등 가족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섭이 심해지고, 맞벌이로 인한 대화시간 부족, 부부갈등 심화, 현지화된 자녀와의 갈등,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족간의 이해 충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양진운, 2011).

해외이주자의 가족기능과 관련된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는 요인은 문화적응이다. 어느 가족이나 문화적응에 있어서는 가족성원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주 가정의 경우 가족원간의 문화적응의 차이(acculturation gap)가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Farver et al., 2002; Buki et al., 2003; Schwartz et al., 2005). 예를 들면, 미국에 이주한 히스패닉 가정의 경우, 가족간 의사소통 문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가족원간 인식의 차이,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도전과 행동문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Sullivan et al., 2007)도 있다. 미국에 이주한 중국인 가정에 대한 연구(Buki et al., 2003)에서는 문화적응의 차이가 큰 경우에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며, 특정상황을 다루는 방법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양육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주가정의 구조적 특징은 핵가족, 부부 맞벌이 등을 들 수 있는데, 하향화된 직업에 적응하면서 부부가 함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거나 변화된 역할수행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부부체계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해외이주와 더불어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보다 빨리 적응하는데, 부모의 전통적 가치와 자녀가 습득한 새로운 가치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자녀는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기대와 요구를 받으면서 혼란

스럽고, 부모가 자신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정착과정에서 부모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함께 느낄 수도 있다. 부모 또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면서 가족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하게 된다. 때로는 언어가 미숙하여 일상생활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자녀에게 학업이나 생활과 관련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자녀들은 부모보다 빨리 외국어를 습득함으로써 가족내에서 세대간의 힘과 통계를 갖게 되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가족의 위계가 변화되며, 성인들과의 대화에 자녀를 배제시킬 수 없게 됨으로써 부모의 생활과 부모에 대한 존경을 유지하기 어려움 상황이 되는 것이다(Miranda et al., 2000).

한편,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은 긍정적인 가족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미국대학의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은 세대간의 갈등이 적게 나타났다(Chung, 2001; Birman et al., 2007에서 재인용). 또한 히스패닉 가정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 경우 균형잡힌 가족적응상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의 융통성을 보였다(Miranda et al., 2000). 문화적응이 잘된 청소년은 부모에게 문화중개자 역할을 하며(Birman, 1998), 문화적으로 잘 통합된 청소년은 가족기능 영역 중 부모의 관여, 긍정적 양육, 지지에서 좋은 결과를 보고하였다(Sullivan et al.,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족체계관점에서 개별 가족 성원의 문화적응이 가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영국 런던시내와 남서부 근교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2009년에 실시되었다. 영국에는 2011년 현재 46,829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고, 그 중 58%인 27,316명이 런던시내와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11). 런던 남서쪽의 킹스톤 지역과 뉴몰든에는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

역을 중심으로 대다수의 한인 해외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연구를 위하여 학교(현지 공립학교, 한인학교), 종교단체, 상점, 업체, 영국인교회의 모임에 참석한 한인여성 등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취합된 설문지는 152부였다. 그 중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설문지 130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이러한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하였다. 또한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가.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2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은 리커트식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은 최희진과 유영주(2003)가 제작한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와의 관계는 장혜경과 김영란(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을 지정하여 그 한 명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최희진·유영주, 2003)의 Cronbach's α 는 .93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7이었다. 가족기능의 세부 항목으로서 정서적 지지는 가족성원간에 믿음과 배려, 심리적인 안정감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5였다. 가족원간의 친밀감은 가족간의 싸움이나 유대관계에 대한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4였다. 가족의사소통은 가족회의나 토론, 의사결정과정 등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43이었다.

자녀와의 관계는 식생활이나 학업지도 등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0, 본 연구에서는 .750으로 나타났다.

나. 문화적응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di(1994)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Acculturation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를 이승중(1996)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본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기타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에는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문제가 포함된다. 본 척도는 문화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유학생 뿐 아니라 국내 결혼이주여성(김오남, 2007; 노하나, 2007; 홍미기, 2009)과 이주노동자(노유성, 2004), 북한이탈주민(이소래, 1997)을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이승중(199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30,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1이었다.

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 인구층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1주일간 조사대상자가 인지 혹은 경험한 우울증상 수준을 측정하며,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한국판 CES-D(전경구·이민규, 1992)의 Cronbach's α 는 .890, 본 연구에서는 .875였다.

라.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척도로는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Zimet 외(1988)가 고안하고, 노하나(2007)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사회적 지지는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지지감 영역 4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노하나(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4, 본 연구에서는 .879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만 26세에서 만 61세의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40.1세였다. 연령별로는 30대(58명, 44.6%)와 40대(60명, 46.2%)가 응답자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영국거주기간이 1년 미만(19명, 14.6%), 1년 이상~3년 미만(48명, 36.9%)으로서 3년 미만 거주자가 51.5%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 영국거주기간은 59.6개월로 나타났다. 영국에 거주하게 된 사유는 본인/배우자의 근무지 발령이 75명(57.7%)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본인/배우자의 취업(25명, 19.2%), 본인/배우자의 유학(20명, 15.4%)순이었다. 이민으로 이주한 경우가 6명(4.6%), 기타로서 국제결혼(1명, 0.8%)이 있었다.

98.5%의 응답자가 기혼상태이며, 직업이 있는 응답자는 33명(25.4%), 없는 경우는 96명(73.8%)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전문대졸/대졸 102명(78.5%), 대학원졸 19명(14.6%)으로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종교는 기독교(74명, 56.9%), 가톨릭(27명, 20.8%), 종교없음(21명, 16.2%), 불교(8명, 6.2%)순이었다. 경제상황에 대하여는 해외 거주자들에게 있어 특별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 경제상황을 질문하였고, 91명(70.0%)은 생활할 만 하다고 응답했고, 25명(19.2%)은 빠듯하다, 14명(10.8%)은 여유롭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자녀는 남아가 57명(43.8%), 여아가 73명(56.2%)이었고,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되는 만 6세~만 11세의 자녀가 100명(76.9%)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30)						
	구분	n(%)		구분	n(%)	
연령	20~29세	4(3.1)	직업 상태	직업없음	96(73.8)	
	30~39세	58(44.6)		직업있음	33(25.4)	
	40~49세	60(46.2)		기타	1(0.8)	
	50세 이상	8(6.1)	학력	고졸 이하	9(6.3)	
영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19(14.6)		전문대졸/대졸	102(71.8)	
	1년 이상~3년 미만	48(36.9)		대학원졸업	19(13.4)	
	3년 이상~5년 미만	22(16.9)		종교	종교없음	21(16.2)
	5년 이상~10년 미만	23(17.7)			기독교	74(56.9)
	10년 이상	18(13.8)	가톨릭		27(20.8)	
이민	6(4.6)	불교	8(6.2)			
영국 거주 사유	본인/배우자의 발령	75(57.7)	주관적 경제 상황	생활하기에 빠듯하다	25(19.2)	
	본인/배우자의 근로 및 취업	25(19.2)		생활할 만하다	91(70.0)	
	본인/배우자의 유학	20(15.4)		생활하기에 여유롭다	14(10.8)	
	자녀 유학	3(2.3)	자녀 성별	남	57(43.8)	
	기타(국제결혼)	1(0.8)		여	73(56.2)	
	결혼 상태	기혼		128(98.5)	자녀 연령	만 5세 이하
이혼/별거/사별		1(0.8)	만 6세~만 11세	100(76.9)		
미혼		1(0.8)	만 12세 이상	19(14.6)		

2.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심리사회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45점에서 131점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89.10점이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을 세 범주로 구분했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의 응답자가 72%였다. 우울의 정도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57점 사이였고, 평균은 32.44점이었다. 우울 수준도 중간 수준의 응답자가 68%를 차지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5점에서 20점까

지 분포하였고, 평균은 16.32점이었다.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중간 정도인 경우가 63%를 차지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심리사회적 특성

(n=130)						
	범주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화적응스트레스	하	17(13)	89.10	19.25	45.00	131.00
	중	93(72)				
	상	20(15)				
우울	하	22(17)	32.44	7.65	20.00	57.00
	중	88(68)				
	상	20(15)				
사회적 지지	하	15(12)	16.32	2.59	5.00	20.00
	중	82(63)				
	상	33(25)				

집단구분: 하<M-SD, M-SD≤중≤M+SD, M+SD<상

3.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가족기능 특성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가족기능 특성은 <표 3>과 같다.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는 최소 21점에서 최대 40점, 평균 34.02(SD=3.79)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원간의 친밀감은 최소 19점에서 최대 30점, 평균 25.07(SD=2.79)점이었다. 가족의사소통은 최소 13점, 최대 27점, 평균 19.19(SD=2.30)점, 자녀와의 관계는 24점에서 40점까지 분포했으며 평균은 32.14(SD=3.33)점이었다.

표 3. 조사대상자가 지각한 가족기능 특성

(n=13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적 지지	34.02	3.79	21.00	40.00
가족원간의 친밀감	25.07	2.79	19.00	30.00
가족의사소통	19.19	2.30	13.00	27.00
자녀와의 관계	32.14	3.33	24.00	40.00
가족기능총점	110.45	9.59	86.00	135.00

4. 주요 변수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요인들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 총점과 하위 영역인 정서적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특이한 점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대 이상, 영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이민이나 자녀유학인 경우, 본인의 직업이 없는 경우,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에 가족기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빠듯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n=130)

구분	n	가족기능(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총점	
연령	20~29세	4	35.75(2.21)	24.75(2.22)	18.75(0.96)	31.00(2.16)	110.25(7.23)
	30~39세	58	34.31(4.21)	25.53(2.86)	19.45(2.68)	32.45(3.30)	111.74(10.01)
	40~49세	60	33.77(3.45)	24.82(2.81)	18.97(2.00)	32.03(3.42)	109.62(9.57)
	50세 이상	8	32.88(3.64)	23.75(1.83)	19.25(1.91)	31.25(3.58)	107.13(7.41)
	F		.718	1.328	.476	.526	.812
영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19	33.68(4.52)	23.79(2.53)	19.58(1.89)	31.89(3.45)	109.95(9.03)
	1년 이상 ~3년 미만	48	34.38(3.98)	25.54(2.99)	19.17(2.38)	32.48(3.54)	111.56(10.58)
	3년 이상 ~5년 미만	22	33.45(3.35)	24.36(2.75)	18.14(2.25)	31.09(2.58)	106.86(8.35)
	5년 이상 ~10년 미만	23	34.22(3.94)	24.87(3.03)	19.52(2.21)	32.61(3.59)	111.22(9.92)
	10년 이상	18	33.83(2.96)	25.22(2.18)	19.72(2.47)	32.17(3.17)	111.23(8.07)
	F		.285	.783	1.682	.804	.975

표 4. 계속

(n=130)

구분	n	가족기능(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총점	
영국 거주 사유	이민	6	33.00(2.76)	24.17(2.64)	19.67(1.97)	31.17(2.48)	108.00(7.62)
	본인/배우자의 발령	75	34.24(3.61)	25.29(2.84)	18.95(2.36)	32.19(3.49)	110.66(10.09)
	본인/배우자의 근로 및 취업	25	33.16(4.54)	24.92(3.23)	19.16(2.17)	32.68(3.74)	109.92(10.65)
	본인/배우자의 유학	20	35.10(3.14)	24.95(2.21)	19.80(2.42)	32.00(2.41)	112.16(7.12)
	자녀 유학	3	31.00(6.56)	24.33(2.08)	20.33(3.05)	31.00(2.65)	106.67(7.24)
	기타	1	32.00	22.00	20.00	27.00	101.00
F			1.163	.519	.664	.783	.498
결혼 상태	기혼	128	33.98(3.76)	25.05(2.80)	19.19(2.32)	32.13(3.36)	110.38(9.62)
	이혼/별거/사별	1	33.00	24.00	19.00	32.00	108.00
	미혼	1	39.00	28.00	20.00	34.00	121.00
	F		.902	.624	.064	.156	.637
직업 상태	직업없음	96	33.76(4.02)	25.02(2.83)	19.04(2.23)	32.06(3.49)	109.87(9.86)
	직업있음	33	34.61(2.97)	25.12(2.70)	19.61(2.51)	32.30(2.90)	111.81(8.70)
	기타	1	39.00	28.00	20.00	34.00	121.00
	F		1.492	.569	.797	.218	1.100
학력	고졸 이하	9	34.22(3.46)	23.44(2.40)	20.00(2.06)	31.11(2.03)	108.78(8.01)
	전문대/대졸	102	33.88(3.84)	25.19(2.75)	18.98(2.37)	32.32(3.39)	110.41(9.72)
	대학원졸업	19	34.63(3.83)	25.21(3.03)	19.95(1.84)	31.63(3.52)	111.42(9.97)
	F		.323	1.66	2.039	.802	.232
종교	종교없음	21	33.38(3.60)	24.48(2.84)	18.67(1.85)	30.71(3.07)	107.24(8.48)
	기독교	74	34.36(3.76)	25.14(2.69)	19.43(2.53)	32.45(3.40)	111.46(9.86)
	가톨릭	27	33.85(4.38)	25.41(3.20)	19.00(2.17)	32.59(3.30)	110.85(10.18)
	불교	8	33.00(2.39)	24.88(2.30)	19.00(1.51)	31.50(2.88)	108.38(6.74)
	F		.607	.470	.709	1.784	1.196
주관적 경제 상황	생활하기에 빠듯하다	25	34.12(3.24)	25.20(2.78)	19.60(1.89)	32.32(3.20)	111.25(9.13)
	생활할 만하다	91	34.03(3.81)	24.99(2.80)	19.10(2.39)	32.04(3.30)	110.21(9.50)
	생활하기에 여유롭다	14	33.71(4.76)	25.36(2.87)	19.07(2.46)	32.43(3.98)	110.57(11.51)
	F		.054	.138	.482	.125	.111
자녀 성별	남	57	33.40(3.58)	24.98(2.79)	18.95(2.03)	31.95(3.24)	109.31(8.81)
	여	73	34.49(4.91)	25.14(2.80)	19.38(2.49)	32.29(3.42)	111.3(10.11)
	F		2.676	.098	1.15	.332	1.356
자녀 연령	만5세 이하	11	34.82(3.46)	25.18(3.03)	17.82(1.78)	32.09(2.91)	109.91(8.41)
	만6세~만11세	100	34.23(3.86)	25.21(2.75)	19.26(2.43)	32.45(3.26)	111.2(9.68)
	만 12세 이상	19	32.42(3.32)	24.26(2.86)	19.63(1.54)	30.53(3.63)	106.84(9.41)
	F		2.121	.930	2.398	2.731	1.682

비해 가족기능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혼/별거/사별인 경우가 기혼, 미혼인 집단과 비교하여 가족기능 점수가 낮았으나 한 사례에 불과해 통계적 비교가 곤란하였다.

나.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p<.05$), 가족원간의 친밀감($p<.05$), 자녀와의 관계($p<.001$)에는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인 가족기능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조사대상 여성의 우울 정도에 따라서는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p<.01$), 가족원간의 친밀감($p<.05$), 전체적인 가족기능($p<.01$)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정도에 따라서는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p<.001$), 가족원간의 친밀감($p<.01$), 의사소통($p<.05$), 자녀와의 관계($p<.001$)에는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인 가족기

표 5.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

(n=130)

구분	범주	n	가족기능(평균, 표준편차)				총점
			정서적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문화적응스트레스	하	17	35.88(3.46)	27.00(3.18)	19.53(2.10)	34.47(3.22)	116.88(10.55)
	중	93	33.95(3.62)	24.97(2.59)	19.23(2.39)	32.16(3.15)	110.34(8.72)
	상	20	32.75(4.41)	23.90(2.65)	18.75(2.10)	30.05(3.05)	105.45(9.89)
	F		3.301*	6.392*	.557	9.103***	7.180**
우울	하	20	36.30(3.05)	26.25(2.51)	19.65(3.44)	33.65(3.69)	115.85(10.65)
	중	88	34.03(3.52)	25.08(2.90)	19.19(1.99)	32.00(3.31)	110.35(9.32)
	상	22	31.86(4.35)	23.95(2.15)	18.77(2.25)	31.32(2.77)	105.90(7.26)
	F		7.940**	3.703*	.757	2.880	6.089**
사회적 지지	하	15	30.60(4.42)	23.93(3.15)	17.87(1.51)	29.67(2.92)	102.07(8.99)
	중	82	33.85(3.57)	24.80(2.75)	19.26(2.11)	31.98(3.14)	109.92(8.96)
	상	33	35.97(2.78)	26.27(2.35)	19.64(2.85)	33.67(3.29)	115.55(8.44)
	F		12.397***	5.019**	3.239*	8.594***	12.391***

* $p<.05$, ** $p<.01$, *** $p<.001$

능($p<.001$)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가족 의사소통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기능의 다른 하위 영역 중 어느 것에 의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가족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5.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특성, 가족기능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족기능 요인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논문에서는 소개하지 않겠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심리학적 특성과 가족기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족기능의 상관관계

(n=130)

구분		가족기능				심리사회적 특성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가족기능 총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가족 기능	정서적 지지	1	.674**	.34	.538**	.866**	-.314**	-.408**	.426**
	가족원간친밀감	.674**	1	.262	.639**	.848**	-.374**	-.393**	.284**
	가족 의사소통	.340	.262	1	.206*	.531**	-.089	-.107	.151
	자녀와의 관계	.538**	.639**	.206*	1	.801**	-.423**	-.344**	.337**
	가족기능 총점	.866**	.848**	.531**	.801**	1	-.408**	-.423**	.408**
심리 사회적 특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314**	-.374**	-.089	-.423**	-.408**	1	.449**	-.408**
	우울	-.408**	-.393**	-.107	-.344**	-.423**	.449**	1	-.311**
	사회적 지지	.426**	.284**	.151	.337**	.408**	-.275**	-.311**	1

* $p<.05$, ** $p<.0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은 가족기능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클수록 가족기능은 약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가족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가족기능은 향상되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은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기능의 하위영역 중 가족 의사소통은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가족기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심리사회적 특성 변인만 회귀분석에 투입하였고,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 해외이주가정의 정서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모델 설명력은 25.8%이며 F값은 15.92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우울은 부적 영향력($\beta=-.261$, $p<.01$), 사회적 지지는 정적 영향력($\beta=.315$,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외이주가정의 가족원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가족원간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모델 설명력은 20.3%이며 F값은 11.98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문화적응스트레스($\beta=-.222$, $p<.01$)와 우울($\beta=-.248$, $p<.01$)이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우울이 적을수록 가족원간에 친밀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 해외이주가정의 가족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은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설명력은 0.4%이며, F값은 1.18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라. 해외이주가정의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대상 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모델설명력은 22.9%이며 F값은 13.78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적 영향력($\beta = -.300, p < .001$), 사회적 지지는 정적 영향력($\beta = .209, p < .05$)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클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며,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마. 해외이주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전체의 모델설명력은 28.6%이며 F값은 19.95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문화적응스트레스($\beta = -.227, p < .01$)와 우울($\beta = -.234, p < .01$)이 가족기능에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beta = .273, p < .001$)는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 클수록 가족기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가족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VIF값을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간의 VIF값이 최저 1.126에서 최대 1.845로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서혜선 외, 2001).

표 7. 조사대상자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

(n=130)

구분	가족기능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		총점	
	B	β	B	β	B	β	B	β	B	β
문화적응 스트레스	-.022	-.110	-.032	-.222**	-.004	-.030	-.052	-.300***	-.112	-.227**
우울	-.129	-.261**	-.090	-.248**	-.017	-.055	-.063	-.144	-.292	-.234**
사회적 지지	.461	.315***	.157	.146	.111	.125	.269	.209*	1.003	.273***
상수	32.621		28.298		18.236		34.425		113.569	
R ²	.275		.222		.027		.247		.303	
수정된 R ²	.258		.203		.004		.229		.286	
F	15.929		11.982		1.185		13.781		17.959	
유의 확률	.000		.000		.318		.000		.000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 총점과 하위 영역인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의사소통, 자녀와의 관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0대 이상, 영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이민이나 자녀유학인 경우, 본인의 직업이 없는 경우,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상 청소년인 경우에 가족기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적인 요인, 급여로 생활하는 발령이나 취업이 아니라 가족이 힘을 합쳐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이민가정, 자녀유학을 위해 기러기가족으로 생활하는 가정의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추측할 수 있게 한

다. 또한 어머니가 50대 이상이며, 자녀가 청소년기에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가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세 항목 모두 중간집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 척도가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중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최소값 45점에서 최대값 131점까지 분포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개인차가 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말해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갖고 있으므로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 연구와 실천에서 이 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가족기능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p < .05$), 가족원간의 친밀감($p < .05$), 자녀와의 관계($p < .001$)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은 집단이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울 정도에 따라서는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p < .01$), 가족원간의 친밀감($p < .05$)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우울이 낮은 집단이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 가족원간의 친밀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기능 총점과 4개 하위 영역과 관련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p < .001$), 가족원간의 친밀감($p < .01$), 의사소통($p < .05$), 자녀와의 관계($p < .001$)에서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해외이주 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주자들은 과거 고국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원해 주던 사회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고립될 뿐 아니라 물질적 지원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은 가족의 대처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이주국가 구성원이나 자국민과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접촉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고 새로운 지지체계를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자국민과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새롭게 이주하여 문화적 전환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정착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보나 조언제공,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한인 지역사회서비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과 가족기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족기능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육정도, 주관적 경제상황, 결혼상태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장미희·전원희, 2008)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장미희 외(2008)의 연구가 국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의 세 요인, 즉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는 가족기능 총점과 40%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있어서 본래 갖고 있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해외이주 이후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사회적 상황이 가족기능과 보다 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족기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심리사회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28.6%로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특성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beta = -.227, p < .01$)와 우울($\beta = -.234, p < .01$)이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beta = .273, p < .001$)는 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 클수록 가족기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여성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가족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는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에도 골고루 영향을 주는데, 가족의사소통 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은유적·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데(Uba, 1994; Bernstein, 2007 재인용) 설문 문항은 가족간의 개방적·직접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을 언급하고 있어서 응답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해외이주 한인들의 가족기능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Bernstein(2007)은 뉴욕시에서 한인 여성들에 대한 정신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자들은 개인적 문제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토의하였고, 추후 우울치료, 가족관계 이슈, 남성과 아버지 역할, 생활적응, 아동·청소년 자녀에

대한 성교육, 알콜중독 등의 문제 등을 다루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혜원(2011) 역시 라오스 한글 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자들은 자이존중감과 양육행동의 향상이라는 효과 외에도 외로움을 나누고 공감하며 상호지지할 수 있었고, 배우자에 대한 소중함,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인식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의 한 초등학교의 한인 어머니들이 모국인 연대 참여를 통해 제한된 사회연결망을 보완하며 교육기관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임민정, 2011).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여성들이 해외이주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면대면의 관계에서 정서적 또는 실제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한인들의 연대활동을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인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p < .001$)와 사회적 지지 수준($p < .001$)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p < .001$)와 사회적 지지($p < .05$)는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또는 다양한 가족 외부자원 활용이 어려운 해외이주 생활에서 어머니의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Atzaba-Poria와 Pike(2005)는 영국에 거주하는 인도 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능력을 증가시키고, 엄격하고 거부적인 양육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더 반응적일 수 있다(Atzaba-Poria et al.,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으로써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경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의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이 지역에 결성된다면 해외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이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해외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기 때

문에 해외이주자의 적응 상황과 가족기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추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30명의 특정 지역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본 연구 결과가 다른 성별, 다른 거주 지역에 일반화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비교분석하면 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해외이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가족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해외이주 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박형원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 및 가족복지, 사회복지실천이며, 현재 문화적응, 아동권리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whwp@iscu.ac.kr)

참고문헌

- 김경화(2010). 재미 기러기 어머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 회지, 14(4), pp.211-239.
- 김미령(2004).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 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540-565.
- 김오남(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 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pp.47-73.
- 김혜신, 김정신(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pp.59-86.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 자대학교, 서울.
- 박순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이 결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태도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1), pp.89-109.
- 서혜선, 양경숙, 김나영, 김희영, 김미경(2001). SPSS를 활용한 회귀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안준희, 조정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 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pp.137-176.
- 양진운(2011). 미국 한인이민자 초기 이민 적응과정 연구: LA한인타운 지역민을 중심으 로. 한국가족복지학, 31, pp.113-142.
- 오성희(2007).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계 호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심리학과, 가톨릭대학교, 부천.
- 원서진, 송인욱(2011).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2), pp.95-113.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인선(2004).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 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연세대학교, 서울.

- 이주재, 김순규(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4), pp.73-91.
- 이혜원(2011). 재외동포의 자이존중감과 양육행동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라오스 한글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1(4), pp.258-284.
- 임민정(2011). 한국 어머니모임을 통한 재미 한인 부모들의 교육기관 참여. *유아교육학논집*, 15(3), pp.227-248.
- 장미희, 전원희(2008). 성인여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7(2), pp.236-244.
- 장혜경,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전점규, 이민규(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 '92.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pp.437-445.
- 최정혜(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pp.29-46.
- 최희진(200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기능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박사학위논문, 가정학과, 경희대학교, 서울.*
- 최희진, 유영주(2003).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pp.15-28.
- 한정애(2006). 자녀를 둔 재미교포의 문화체험 연구. *석사학위논문, 교육학과, 경성대학교, 부산.*
- 홍미기(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Atzaba-Poria, N., Pike, A.(2005). Why do ethnic minority(Indian) children living in Britain display more internalizing problems than their English pe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parental style as medi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ural Development*, 29(6), pp.532-540.
- Beiser, M. N., Hou, F.(2006). Ethnic identity, resettlement stress and depressive affect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Social Science &*

Medicine, 63, pp.137-150.

- Bernstein, K. S.(2007). Mental health issues among urban Korean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18(2), pp.175-180.
- Buki, L. P., Ma, T. C., Strom, R. D., Strom, K. K.(2003). Chinese immigrant mothers of adolescents: Self-perceptions of acculturation effects on parenting.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9, pp.127-140.
- Birman, D., Taylor-Ritzler, T.(2007).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dolescent im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s. *Cultural Diversity and the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4), pp.337-346.
- Farver, J. A., Narang, S. K., Bhadha, B. R.(2002). East meets west: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conflict in Asian Indi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pp.338-350.
- Kou, B. C. H, Chong, B., Joseph, J.(2008). Depression and its psychosocial correlates among older asian immigrants in north America; A critical review of two decades' research.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0(6), pp.615-652.
- Miranda, A. O., Estrada, D., Firpo-Jimenez, M.(2000). Differences in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and environment among latino families in dissimilar stages of acculturat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8(4), pp.341-350.
- Noh, S., Avison, W. R., Kaspar, V.(1992).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pp.84-91.
- Noh, S., Kaspar, V.(200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acculturation, and ethnic suppor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 pp.232-239.
- Schwartz, S. J., Pantin, H., Prado, G., Sullivan, S., Szapocznik, J.(2005). Family functioning, identity, and problem behavior in hispanic immigrant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4), pp.392-420.

Sullivan, S., Schwartz, S. J., Prado, G., Huang, S., Pantin, H., Szapocznik, J.(2007). A bidimensional model of acculturation for examining differences in family functioning and behavior problems in hispanic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4), pp.405-430.

Short K. H., Johnston, C.(1997). Stress, maternal distress, and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immigration: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3), pp.494-503.

Williams, C. L., Berry, J. W.(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6(6), pp.632-641.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Family Function of Korean Immigrant Family

Park, Hyung Won

(Seoul Cyber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al factor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family function of immigrant family. The sample consisted of 130 Korean women living in the UK.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al factors for family func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which were categorized as psychosocial factors, there were meaning differences in family function. The group which had low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showed high family functioning. The group had high level of social supports also showed high family function. Regression analyses determined that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had significant predictive effects on family function of Korean immigrant family.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cerns and interventions abou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to improve family function and family adaptation to host culture.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a social support system that emphasizes decreasing stress and facilitating family function for immigrant families undergoing cultural transitions.

Keywords: Family Function, Family Relationships,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Korean Immigrant Family